

생명나눔 실천회-사랑실은 교통봉사대 '자매결연'

장기기증·심장병 수술 "서로 돕자"

교계의 장기기증 운동 단체인 생명나눔실천회와 심장병 어린이 후원 시민단체로 유명한 '사랑실은 교통봉사대'가 자매결연을 맺고 아름다운 삶과 생명을 가꾸기 위한 공동활동을 펼친다.

생명나눔실천회(이사장 법장)와 사랑실은 교통봉사대(대장 손삼호·이하 사랑대)는 10월27일 충남 예산 수덕사에서 생명나눔 관계자 및 수덕사 신도들과 사랑대의 전국 40개 지대 지대장 및 관계자 1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매결연을 맺고 상호협력과 사회봉사의 역할을 다하는 내용의 협약서를 교환했다.

사랑대는 전국 40개 지대(지부)에 등록된 회원 수만도 1만2천여명에 이르는 택시운전사들의 봉사단체로 86년 설립돼 지금까지 모두 591명의 심장병 어린이 수술을 지원해 왔으며, 각 지역별로 자원봉사자 및 효행봉사 활동을 전개해 온

행정자치부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이번 자매결연으로 생명나눔실천회는 전국적인 규모의 장기기증운동을 벌일 수 있게 되는 등 캠페인의 효율성과 활성화에 공헌할 수 있게 됐다. 또 자매결연으로 생명나눔실천회와 사랑대는 현재보다 폭넓게 심장병 어린이 후원사업을 펼칠 수 있게 됐다. 또한 이번 자매결연은 '생명나눔 실천'을 위한 시민단체간의 결함이라는 점에서 시민단체들 사이에 좋은 모델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생명나눔실천회는 매년 2~3명의 심장병 어린이에게 수술비를 후원하며, 생명나눔의 각종 홍보물에 사랑대의 활동을 소개하는 새 노선을 강행하기로 해 물의를 빚고 있다.

한국전력공사가 국경원과 천주교의 반대로 두 차례나 송전노선(34만5천V 신안성-신용인간)을 변경한 후, 불교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용인 장경사(주지 정후) 주변을 지나 새 노선을 강행하기로 해 물의를 빚고 있다.

장기기증 운동 동참을 유도하는 한편, 회원들의 택시에 생명나눔 캠페인 스티커 부착하고 홍보물을 비치하는 등 생명나눔실천회 사업에 지원한다. 또 봉사대 전체 또는 각 지대별 행사 때마다 생명나눔의 활동을 소개하고 장기기증 운동 캠페인을 벌인다. 이와 함께 두 단체는 각자가 주최하는 행사나 캠페인에 참여해 상호 협력을 극대화시킬 계획이다. 사랑대는 특히 10여년 전부터 자체적으로 장기기증 운동을 벌여 1000여 회원들에게 이미 서약을 받았을 정도로 '생명나눔'에 대한 관심이 높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장경사 인근 송전탑설치 '물의를'

조계종-용인주민, 산업자원부 항의방문

한국전력공사가 국경원과 천주교의 반대로 두 차례나 송전노선(34만5천V 신안성-신용인간)을 변경한 후, 불교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용인 장경사(주지 정후) 주변을 지나 새 노선을 강행하기로 해 물의를 빚고 있다.

한진 전력계통 건설처 중부건설소는 최근 조계종 총무원장에게 보낸 '송전선로 변경 요청에 관한 회신문'을 통해 "위치 변경은 매우 어렵다"며 "산업자원부의 노선승인이 완료되면 공사를 시작할 것"임을 밝혔다.

한진측은 노선변경 사유에 대해 "추진과정에서 (국경원과 천주교의) 반대에 직면해 부득이 당초 승인 받은 구간에서 일부 변경했다"면서도, "불교계가 철탑설치를 반대하는 것은 남비현상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조계종 총무원은 "전

은 "사랑대는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이상 지역별 행사가 열리고, 행사 때마다 거의 대부분의 회원들과 회원 가족들이 동참하는 막강한 결속력을 지니고 있는 단체"라며 "부처님의 생명존중 사상을 알리고 캠페인 영역을 확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사랑실은 교통봉사대 손삼호 대장은 "이미 받아놓은 회원들 장기기증 서약서를 곧바로 생명나눔측에 전달하고 자매결연의 뜻을 더욱 아름답게 빛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장경사 인근 송전탑설치 '물의를'

조계종-용인주민, 산업자원부 항의방문

동사찰인 장경사의 사찰수행 및 자연·문화환경 보전차원에서 제기한 불교계의 요구를 남비현상으로 폄하하고, 지역주민과 사찰측이 제시한 새로운 노선안마저 무시한 편파행정"이라며 강력 항의했다.

조계종은 주민공청회 등 사전절의 없이 송전선로를 무단으로 변경한 한진에 대해 국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10월30일 주민 300여명과 함께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산업자원부에 대한 항의시위를 벌였다.

민주당 조성준의원도 10월27일 제215회 정기국회 헌정국감사에서 장경사 일대 송전선로 건설문제와 관련 노선변경과정에서 공청회를 가졌는지 질의했으며, 사찰과 주민들의 요구 중 합리적인 제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와 수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경 기자



○생명나눔실천회와 사랑실은 교통봉사대는 10월27일 수덕사에서 자매결연을 맺고 '생명나눔실천'을 위해 서로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조계사 신협 예금지급

1~11월 농협 종로지점

지난 8월 공공회령 사건으로 일체의 업무와 예금인출을 중지했던 조계사 신협이 이달 1일부터 11월 까지 농협중앙회 종로지점을 통해 조합원들의 예금을 지급한다. 이 조치는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조계사 신협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결정함으로써 이뤄진 것이며, 예금자들은 통장과 수령인의 도장, 주민등록증 등의 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단 대리인이 수령할 경우에는 소정양식의 위임장을 소지해야 한다.

21세기와 대중운동

대원회 전국순회법회

불교대원회는 8일부터 26일까지 '21세기와 대중운동'이란 주제로 전국 5개지역에서 순회법회를 갖는다.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으로 돌아가자는 취지로 봉행되는 이번 순회법회는 진주(8일), 이천(10일), 포항(14일), 원주(18일), 서울(26일)에서 최봉수, 정병호, 권기중, 동국대학교와 박원일, 김범준 법사가 강의한다. 대원회는 이번 법회를 통해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불교현실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다. (02)773-9171 김두식 기자

장소 소지해야 한다.

다만 98년 8월1일 이후 신규로 가입한 예금 중 2천만원을 넘는 경우는 원금만 보호받을 수 있으며, 2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해 최고 2천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98년 7월31일 이전에 가입한 예금에 대해서는 원금과 약정이자를 모두 보호받는다.

그러나 담보로 제공하고 있는 예금 등 채권과 압류 및 가압류 등으로 지급이 금지된 예금, 제3자 대출을 위한 보증채무 등은 지급이 보류된다. 한명우 기자

외국인 노동자

인권문화센터 개원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은 외국인 노동자 상담지원센터인 '외국인 노동자 마을'을 '외국인 노동자 인권문화센터 (회장 영도스님, 철원 심원사주지)로 개편, 2일 오전 11시 서울 경동 경실련 강당에서 개원식을 갖는다. 이날 개원식에서 전제성 박사(한국배달리서전협회장)가 '외국인 노동자 인권보호와 불교적 이해'를, 이정호 외국인노동자협의회 회장이 '외국인 노동자의 현실과 과제'를 주제로 강연한다. (02)3147-2600 김재경 기자

"달라이라마 방한"

대구서도 서명운동

달라이라마의 방한 성사를 위한 서명운동이 대구에서도 시작됐다. 조계종 대구경북교포사단, 맑고 향기롭게 대구모임, 경실련 불교시민회, 대불련 대구경북지부, 동화사 청년회 등 대구지역 7개 단체는 10월20일 동화사 개산대재 행사 때부터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이들 모임은 이와 함께 10월29일 열린 달라이라마 방한 성사를 위한 전국 총괄대회에 맞춰 '달라이라마 방한 추진을 위한 대구운동본부'를 공식 발족했다. 16일로 예정된 각계의 입국허용선언문 발표와 함께 서울에서 서명운동이 시작됐다. 김재경 기자

"민주당 연등회

방한운동 비협조"

준비위-재가연대 불만

새천년민주당 소속 불자모임 연등회가 달라이라마 방한운동에 비협조적인 것은 물론, 심지어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충격을 주고 있다.

'불교비로세우기 재가연대'(상임대표 박광서)는 10월26일 "달라이라마 방한 준비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명사들의 적극적인 동참 속에 진행된 각계 33인 선언문, 정치인 33인 선언문 등에 여당 국회의원과 천주교인 국회의원은 볼 수 있었어도 연등회 소속 국회의원은 한 명도 찾아볼 수 없었다"면서 "진정한 불자로서 거들줄 것"을 촉구했다.

달라이라마 방한준비위 관계자도 "연등회 지도부가 조직적으로 달라이라마 방한운동을 방해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우담바라' 보도후 격려-항의 잇달려

본지에 '우담바라' 관련 기사(291호 23면, 10월25일자)가 나간 후 여러 곳에서 '우담바라'와 같은 물체를 발견했다는 제보 전화가 이어졌다. 또 기사에 대한 항의와 함께 격려도 잇달았다.

항의 내용은 이렇다. "하루에도 수천명이 찾아와 꽃을 보고 환희함에 짓고 있다. 불교중흥의 계기를 만났는데, 찬물을 끼얹는 이유가 무엇인가."

격려의 메시지도 많았다. "3천 년만에 한 번 핀다는 꽃이 우담바라인데,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답겠는가. 그런데 돌보기를 들이대야 볼 수 있는 것이라면 '우담바라' 이겠느냐"라며 "현대불교에서 잘 지켜주었다. 불자들이 바른 신령의 길을 가도록 언론훈에서 이끌어 달라"는 것이다. 곤충학자들은 이 꽃이 풀잡자리의 알이라는 소견을 내놓았다.

대전대 생명과학부 남상호 교수는 "종교적인 해석은 별개의 문제"라고 전제하고 "근접촬영한 사진으로 봤을 때 풀잡자리의 알이 확실하다"고 밝혔다.

꽃잡자리는 잡자리와 비슷하게 생긴 날벌레로 주로 숲에서 서식하며 봄과 가을에 걸쳐 알을 낳는데 길쭉한 알자루를 이용해 낳고 그 끝에 알을 엮는다. 애벌레가 알을 빠져나갈때 알껍질이 벌어지기 때문에 마치 꽃이 핀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

그 작은 꽃이 무엇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다시 한 번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는 일이 중요하다. 정견을 가지고 정행을 해서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니르바나를 얻는 것, 이 길을 스님들과 불교의 지도자들이 이끌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정성운 기자

부처님의 가르침과 큰 스님들의 말씀을 21세기 첨단과학기술 기법으로 새롭게 만나보십시오. 9일간의 자기 성찰 여행이 당신 안에 있는 또 다른 당신을 일깨워줄 것입니다.

한벗 아보타 센터. 아보타 마스터 / 동시통역사 손인국 · 아보타 마스터 / 임상심리 전문가 김정현. 연락을 주시는 분께는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서울시 노원구 상계 1동 1277. 전화 : 02) 3392-0464 / 핸드폰 : 016) 271-2096



○물길을 따라 걷고 있는 순례단.

1300리 낙동강 도보순례 국토청정 결의 한마음 행진

10월23일 오전 서울 종로공원에서 출정식을 갖고 곧바로 조계사에서 출발한 1300리 낙동강 도보순례단이 강원도 태백시 황지연못에 도착한 것은 오후6시.

순례단장인 수경스님(국민행동 상임 공동대표) 부단장 일철스님(전 조계종 기획실장), 합현(법주사)·연성(수덕사)스님 등 순례단원 20명은 수경스님이 낭독한 기원문을 태우면서 한마음으로 국토청정을 발원했다. 이어 이날 밤은 태백산 아래 민박집

에서 '지역주민과의 만남'으로 결의를 다지는 자리가 마련됐다.

10월24일 오전5시에 기상. 아침을 먹고 오전6시40분 일행은 주민들의 박수를 받으며 낙동강의 발원지를 출발했다. 황지에서 몇백 미터밖에 흘러오지 못했지만 '황지'임을 나타내는 풋발 밑에 선명한 '2급수'라는 글자가 무색하다.

오후4시 참가자들은 9시간 반을 꼬박 걸어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 결동리에 도착했다. 총 도보거리는 원래의 목표

를 3km나 초과한 29km.

이날 저녁 세계야생동물보호기금(WWF) 소속 필리퍼 윌시와 앤드류 콕스 커플이 도착. 3일간 도보순례를 함께 하기로 했다.

참가자들은 하나 둘씩 떨어지는 빗방울을 맞으며 텐트를 치기 시작했다. 일행은 아침에 비가 오지 않는 한 예정대로 경북 봉화군 현동면 분천리까지 20km가량을 걷고 나머지 483km를 야영하며 더 걸을 계획이다. 태백=김재경 기자

사츨다듬과 건강을 위한 채식 SM 채식 뷔페. 음식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마음이 영혼에 미치는 것과 같이 매우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몸과 마음을 구하는 100% 완전 채식 뷔페가 있습니다. No계란, No동물성, No오신채, No화학조미료. 결혼·개업·환갑·생일 40인 이상 15,000원 40인 미만 20,000원. 밀까스, 연자죽, 렌터키콩고기, 탕수육비베큐, 순수채식 김치, 육개장 등, 콩으로 만든 각종 고기맛 요리 포함. 점심/저녁 식사 10,000원 (도시락 동일) 출가자/10세 이하 5,000원. 월요일 - 토요일 (점심 11:30-2:30, 저녁 6:00-9:00). 베지러브 오픈!! (채식 베이커리, 채식재료 전문점) 채식빵, 햄버거, 샌드위치, 케이크, 만두, 피자, 햄, 라면 등 채식인을 위한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 (전화: 02) 577-5749.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단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해천법사. "풍수원리에 맞지않는 주택이나 상가, 사무실들에 적용하면 재운과 복을 일으키는 운세로 바꾸어 놓고,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에 적용하면 생기있는 땅의 명당자리 산소로 변하게 하는 방법이 수록된 책자"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책자내용: 1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2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3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4 팔상의 상정에 대한 설명 5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6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7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용서 및 적용방법 8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9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10 음택(산소)풍수에 적용하면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 불탑다라니의 신비 11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 불탑다라니의 산소적용방법 12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 불탑다라니 처방비법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 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해천법사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이책은 영가의 장례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4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자내용: 1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2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3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 하는가? 4 태어날 때의 천도는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5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6 조상대대 천축, 연속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7 특별천도제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8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9 특별 천도제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의 예(예) 10 영가들의 특별천도제를 지낸 후 신생생명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11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수 있는 기도방법 12 굿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굿해방법.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031) 334-9490, 334-9491 야간: (031) 706-3060